

만 4세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놀이성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

Exploring the Effects of Attachment Security and Playfulness on Social
Competence among 4-year-old Preschool Children

최진영¹ 신나나²

Jin Young Choi¹ Nana Shin²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relations among attachment security, playfulness, and social competence during the preschool period and to investigate relative effects of attachment security and playfulness on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 total of forty eight 4-year-old preschool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current study. Attachment security was assessed using the Attachment Q-sort during a two- or two and half hour home visit. Preschoolers' playfulness and social competence were evaluated by mothers. First,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interpersonal adjustment. Preschoolers with secure attachment were rated by their mothers as having higher interpersonal adjustment. In addition, preschoolers' playfulnes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opularity/leadership and social participation. Second, when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and playfulness were entered together to predict social competence, attachment security and sense of humor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preschoolers'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social and cognitive spontaneity significantly predicted popularity/leadership. With respect to social participation, preschoolers' physical spontaneity was a significant predictor.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ttachment security and playfulness tap into different aspects of social competence, suggesting that both are needed to be emphasized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during the preschool period.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5A8024925).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¹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

²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e-mail : nanashin@ewha.ac.kr)

【Key words】 Attachment Security, Playfulness, Social Competence

I. 서론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0~5세 영유아의 약 54%인 1,496,671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15). 이러한 수는 10년 전보다 약 1.5배 증가한 것으

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무상 보육의 실시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현대의 유아들이 과거보다 보육 시설을 더 이른 시기에, 그리고 더 오랜 시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결과 유아들은 또래 관계를 보다 일찍 경험하게 되며,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사회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유아기에 습득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사회적 능력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소 다른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Ladd, 2005). 사회적 능력에 대한 초창기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아동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기술이나 자산을 중심으로 사회적 능력을 정의하였으나, 보다 최근에는 사회적 결과물, 즉 또래 관계에서의 인기도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능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대인관계에 필요한 능력(Dodge, McClaskey, & Feldman, 1985), 또래 혹은 성인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타인에게 수용되는 능력(Dodge, Pettit, McClaskey, & Brown, 1986), 사회적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Rose-Krasnor, Rubin, Booth, & Coplan, 1996)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능력이란 대인 관계에서의 적응, 인기도/지도력, 사회적 참여 등과 같이 유능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또래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능력은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는데, 사회적으로 유능한 유아는 독립적이고 성취지향적이며(조송림, 2013),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Shonkoff & Phillips, 2000), 갈등 상황이나 문제가 유발된 상황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고를 더 많이 보인 반면(박만선, 2002), 사회적 유능성이 낮은 유아는 또래 집단에서 어울리지 못하거나 소외되는 등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순정, 김희진, 2007; Bowman, Donovan, & Burns, 2001). 또한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사회적 유능성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유아기에 형성된 사회적 능력이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며(Santos, Vaughn, Peceguina, Daniel, & Shin, 2014), 이 시기 낮은 사회적 능력을 보인 유아는 청소년기에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Bornstein, Hahn, & Haynes, 2010)이나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부적응 행동(Burt, Obradović, Long, & Masten, 2008)을 보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능력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에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선행 요인을 찾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선행요인들 중 가정은 유아가 최초로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곳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양육과 보살핌을 제공하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동의 성장과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강조되어 왔다.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아동 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의미하는 애착은 출생 후 첫 1년 동안 경험하는 상호작용의 질에 의해서 결정되며(Bowlby, 1969/1982, 1973, 1980), 상호

작용 시 주양육자의 민감성과 반응성, 그리고 온정성을 통해 유아는 안정 혹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주양육자와 형성한 애착관계는 이후 또래 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의 원형이 되며,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또래 그룹에서 유아의 긍정적인 사회적인 적응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은 애착 연구가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다(Bost, Vaughn, Washington, Cielinski, & Bradbard, 1998; Rose-Krasnor, Rubin, Booth, & Coplan, 1996; Verissimo, Santos, Fernandes, Shin, & Vaughn, 2014; Waters & Sroufe, 1983).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 실험(Ainsworth & Wittig, 1969)이지만, 유아기가 되면 가정에서 어머니와 유아가 일상적으로 가지는 상호작용을 관찰한 후 이에 근거하여 애착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Waters & Deane, 1985). 관찰방법을 사용하여 유아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한 후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유아가 높은 사회적 능력을 보이며(이상은, 신건호, 2003), 또래 간 분노나 공격성을 덜 보이고(DeMulder, Denham, Schmidt, & Mitchell, 2000; Marcus & Kramer, 2001), 인기도(Szewczyk-Sokolowski, Bost, & Wainwright, 2005)와 리더십(심미경, 2013)이 높으며, 또래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Thompson & Lamb, 1983). 반면, 주양육자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에 비해 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 또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고 일탈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eMulder et al., 2000). 최근 Groh 등(2014)은 유아기 관찰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애착 안정성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60편의 연구($N = 4,441$)를 메타 분석한 결과,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능력 간의 유의한 효과 크기를 보고하였다($d = .39$, $CI = 0.32, 0.47$).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이를 바탕으로 또래 간 긍정적인 적응을 위한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켜 나감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아기는 사회적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우수경, 2009), 유아는 놀이를 통해 또래와 상호작용한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 또래들과 협동하거나 경쟁하고, 규칙이나 도덕적인 기준 등 사회적 기술을 배우며(Johnson, Christie, & Wardle, 2005),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뿐 아니라 또래의 관점이나 정서도 점차 인식하게 되면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된다(김미숙, 2001). 실제로 혼자 놀이를 많이 하는 유아와 또래와 협동 놀이를 많이 하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서의 차이가 보고되고 있는데, 혼자 놀이를 많이 하는 유아의 경우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보인 반면(Nelson, Hart, Yang, Wu, & Jin, 2012), 또래와 협동 놀이를 많이 하는 유아는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였다(김순정, 김희진, 2007; 박은영, 신은수, 김현진, 2012; 신은수, 권미경, 정현빈, 2010). 즉, 유아는 놀이를 통해 또래의 의견이나 태도를 더 많이 접하게 되고, 또래와 서로의 목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

이렇듯 유아에게 놀이는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며, 유아는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몰입하기도 한다. 또한 유아는 놀이에서 자신만의 놀이 방식이나 놀이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Luckey & Fabes, 2005), 유아가 보이는 놀이에 대한 태도나 성향, 즉 놀이의 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을 놀이성(playfulness)이라고 지칭한다(Barnett, 1990; Lieberman, 1977). 즉, 각 유아가 가지고 있는 놀이성이 놀이라는 행동 특성으로 드러나는 것이며(Rentzou,

2013), 놀이성은 상황이나 놀이 유형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놀이 성향이라 할 수 있다(Rubin, Fein, & Vandenberg, 1983). Lieberman(1965, 1977)은 놀이성에 관심을 가진 초창기 학자로, 놀이성의 구성요소를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측면 각각에서의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통합되어 놀이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놀이성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하여 많이 연구되었는데(고희진, 2004; 김영희, 2002; 김은숙, 2013; 우수경, 2008, 2013; 이경실, 1997; 조송림, 2013; Coie & Kupersmith, 1983; Rentzou, 2012),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놀이성 수준이 높은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 사회적 능력을 더 보였으며(이상은, 이주리, 2010), 높은 자기 주도성과 협동성을 보이며(김영희, 2002),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회적 능력을 발휘하여 이를 해결하려 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최명선, 김지혜, 2006). 반면, 놀이성이 낮은 유아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능력을 보이고(조미정, 최태산, 2011), 친사회적 행동 또한 적게 보였다(김영희, 1995; 이경실, 1997). 또한 Jenkinson(2001)은 놀이성이 아동이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돕는다고 강조하면서, 놀이성이 사회적 관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놀이성은 개인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유아가 또래와 상호작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두 변인, 즉 유아가 주양육자와 형성한 애착 안정성과 놀이성 간의 관련성도 보고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애착 안정성이 유아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박혜원, 2012; Belsky, Garduque, & Hrcir, 1984; Slade, 1987).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들이 놀이에 흥미를 더 보인 반면(Rose-Krasnor et al., 1996),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놀이를 주도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며, 또래로부터의 놀이 제안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Pastor, 1981). 애착 안정성과 놀이성 간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이혜은(2005)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만 2세 걸음마기 아동이 높은 수준의 놀이성을 보이며,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걸음마기 아동의 가장 큰 차이는 놀이성의 하위 영역 중 사회적 자발성과 인지적 자발성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권숙화(2008)는 애착 안정성이 높은 유아가 신체적 자발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애착 안정성, 놀이성 및 사회적 능력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지만, 세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놀이성의 각 하위요인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 안정성, 놀이성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관계적인 측면인 애착 안정성과 유아의 개인적인 놀이 성향이라 할 수 있는 놀이성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만 4세 시기에 주목하였는데, 이 시기는 가정에서 주양육자와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또래 집단에 진입하면서 혼자놀이보다 협동놀이와 집단놀이가 많이 나타나고(박은영 등, 2012; 신은수, 김명순, 신동주, 이종희, 최석란, 2002), 또래와의 놀이 빈도가 증가하는 시기이다(신은수 등, 2002). 또한 사회적

능력을 형성하는데 요구되는 또래의 관점이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만 4세를 전후로 발달적 전환을 경험하기 때문에(Wellman, Cross, & Watson, 2001; Widen & Russell, 2004), 본 연구에서는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 안정성, 놀이성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실제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가정에서 관찰한 후 Q방법론을 이용하여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아 대상 국내 애착 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사회적 능력의 기초가 향상되는 유아기에 관계적인 특성과 개인적 특성 중 사회적 능력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러한 특성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애착 안정성, 놀이성,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놀이성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4세 유아 48명이다. 본 연구에서 만 4세 시기에 주목한 이유는 이 시기 또래와의 놀이 빈도가 증가하고(신은수 등, 2002),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이루어질 뿐 아니라(Sutton-Smith, 1971), 성공적인 상호작용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Waters & Sroufe, 1983).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평균 월령은 54개월($SD = 3.92$)이었으며, 남아가 22명(45.8%), 여아가 26명(54.2%)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다소 많았다. 출생순위는 외동이가 21명(43.8%)이었고,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가 22명(45.9%), 둘째가 5명(10.5%)으로 첫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체 유아의 95.8%인 46명의 유아가 보육 기관에 재원중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7세($SD = 3.33$)였으며, 30대가 38명(79.2%)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대학교 졸업이 27명(56.3%)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졸업이 11명(22.9%)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직업의 경우 전업주부가 24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교사 등이 9명(18.8%)이었다. 가정의 월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19명(39.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0~500만원이 12명(25.0%)로 뒤를 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48)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아	22(45.8)	보육기관 재원여부	네	46(95.8)
	여아	26(54.2)		아니오	2(4.2)
출생순위	외동이	21(43.8)	어머니 연령	20대	1(2.1)
	첫째	22(45.9)		30대	38(79.2)
	둘째	5(10.5)		40대	9(18.8)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2(4.2)	가정의 월소득	300만원 이하	6(12.5)
	전문대 졸업	11(22.9)		300~400만원	11(22.9)
	대학교 졸업	27(56.3)		400~500만원	12(25.0)
	대학원 졸업	8(16.7)		500만원 이상	19(39.6)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24(50.0)			
	자영업	3(6.3)			
	일반 사무직	3(6.3)			
	회사원/은행원/공 무원/교사	9(18.8)			
	전문직	4(8.3)			
	기타	5(10.4)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애착 안정성, 놀이성 및 사회적 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찰법과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애착 안정성은 가정방문을 통한 관찰을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은 어머니 보고에 의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었다.

1) 애착 안정성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Waters와 Deane(1985)이 개발한 애착 Q-방법론(Attachment Q-set; AQS)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AQS는 유아가 가정 내에서 보이는 행동이나 양육자와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상황에서 보이는 특성들을 관찰하여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van IJzendoorn, Vereijken, Bakermans-Kranenburg, & Riksen-Walraven, 2004). AQS는 유아의 성격, 태도 및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관찰되는 행동을 기술한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와의 분리 상황, 정서적 반응, 탐색 활동 등 애착과 관련된 여러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다. AQS의 문항의 예로는 ‘아동은 엄마를 탐색을 위한 기지로 사용하는 패턴을 명확하게 보인다.’, ‘아동은 집에서 놀 때,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때때로 엄마를 부르고 엄마가 이동할 때 이를 알아차린다. 엄마가 하던 일을 멈추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이를 알아차린다.’ 등이 있다.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두 명의 관찰자가 약 2~2.5시간 동안의 가정방문을 실시하였다. 가정방문 전 관찰자는 AQS에 포함된 90문항이 의미하는 바와 관찰하기 어려운 문항들, 그리고 관찰 후 각 문항을 분류하고 기록하는 법 등에 대해 훈련받았다. 관찰을 하는 동안에는 유아와 어머니의 행동 중 AQS에 포함된 문항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기록하였고, 관찰을 마친 후 관찰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어머니에게 질문하였다. 관찰한 행동이 아니라 어머니의 응답에 기초한 문항들은 극단점(1~3, 7~9)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관찰을 마친 후에는 각 문항이 관찰된 유아의 행동과 특성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에 따라 카드를 분류하였다. 카드는 문항의 내용이 유아의 특성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에 따라 ‘전혀 설명하지 못함(1점)’부터 ‘매우 잘 설명함(9점)’의 9가지 점수로 분류되었다. 각 점수마다 10장의 동일한 카드가 포함되도록 분류하였으며, 분류를 마친 후에는 기록지에 각 문항이 속한 점수를 기록하였다. 각 유아의 점수는 ‘가상적으로 애착 안정성이 가장 높은 아동’에 대해 애착 전문가들이 산출한 기준 점수와 비교되었는데, 이 때 각 유아의 점수와 기준 점수와의 상관계수가 각 유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가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애착 안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관찰자 간 신뢰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 유아는 두 명의 관찰자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관찰자 간 신뢰도는 .85이었다. 따라서 두 관찰자 값의 평균값을 산출하였고, 이 점수가 유아의 최종 애착 안정성 점수로 사용되었다.

2) 놀이성

유아의 놀이성은 Barnett(1990)이 개발한 교사용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 CPS)’를 유애열(1994)이 번안하고 김미숙(2001)이 부모용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3문항으로, 신체적 자발성(4문항), 사회적 자발성(5문항), 인지적 자발성(4문항), 즐거움의 표현(5문항), 유머 감각(5문항)의 다섯 하위요인으로 분류된다.

각 하위요인의 의미와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신체적 자발성은 신체 간 협응성이 좋으며 활동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아의 신체 움직임이 활발하다.’, ‘유아가 정적인 활동보다는 동적인 활동을 더 좋아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사회적 자발성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협동적이며, 쉽게 어울리는 것을 의미하며 ‘유아는 놀이감을 친구들과 기꺼이 나누어 놀이한다.’, ‘유아는 친구들과 잘 협동하여 놀이한다.’ 등의 문항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인지적 자발성은 놀이에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놀이나 게임을 고안, 놀잇감을 독창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문항의 예로는 ‘유아는 자신만의 새로운 방법으로 게임을 고안해낸다.’, ‘유아는 놀이할 때 창의적인 방법으로 놀잇감을 사용한다.’ 등이 있다. 즐거움의 표현은 유아가 놀이에서 기쁨, 행복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유아가 놀이를 하면서 즐거워한다.’, ‘유아가 놀이 중 감정을 표현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머 감각은 유아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난스러우며 재치가 있는 것으로 ‘유아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 ‘유아가 친구들과 농담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신체적 자발성 .89, 사회적 자발성 .77, 인지적 자발성 .78, 즐거움의 표현 .82,

유머 감각 .64이었다.

3) 사회적 능력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도현심(1994)이 개발한 ‘사회적 능력척도: 유치원용(Social Competence: Kindergarten)’을 서유진(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대인 적응성(11문항), 인기도/지도력(8문항), 사회적 참여(5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의 의미와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대인 적응성은 또래 관계에서 사교적이고 협력적인 행동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필요하다면, 친구들에게 양보도 하면서 논다.’, ‘친구들과 다투지 않고 대화를 지속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되어있다. 인기도/지도력은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으며, 친구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행동들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친구가 많다.’, ‘친구들의 짝으로 선택될 때가 많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참여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추구하는 행동특징을 설명하며 ‘혼자 노는 것보다 여럿이서 함께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와 ‘친구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문항이 이에 포함된다.

각 하위요인별로 부정적 의미의 문항은 역채점을 한 후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인기도/지도력에서 신뢰도를 낮추는 한 문항(11번)이 발견되어, 이 문항을 삭제하고 각 하위요인별 평균을 산출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적응성, 인기도/지도력, 사회적 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대인적응성 .86, 인기도/지도력 .75, 사회적 참여 .85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유아교육기관과 인터넷 육아 카페를 통해 모집되었다. 공고문에 남긴 전화와 이메일로 연구 참여에 관심을 보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일정을 조율한 후 유아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가정방문을 1회 실시하였다. 가정방문 시 2~2.5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2명이 방문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유아를 관찰하였다.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질문지는 어머니에게 배부되어 응답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애착 측정 시 관찰자 간 일치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급내 상관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s)를, 문항 간 내적일치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본 분석으로 애착 안정성, 놀이성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애착 안정성과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유아의 애착 안정성, 놀이성 및 사회적 능력의 일반적 경향과 정규성 여부를 살펴보았다(<표 2>). 먼저 애착 안정성의 경우 평균은 0.40($SD = 0.25$)으로, 일반 아동 대상으로 AQS를 사용한 28개의 연구(van IJzendoorn et al., 2004)에서 보고된 애착 안정성의 평균인 0.32($SD=0.16$)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애착 안정성을 보였다. 놀이성의 경우 유아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은 수준의 놀이성을 보였으며, 하위요인 중 즐거움의 표현($M = 3.46, SD = 0.43$)을 가장 많이 보였으며, 놀이에 협동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발성을 가장 적게 보였다($M = 2.96, SD = 0.42$). 사회적 능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아는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능력을 보였으며, 특히 또래와 함께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행동 특성인 사회적 참여 수준이 가장 높았다($M = 3.37, SD = 0.41$). 정규성과 관련하여, 모든 변인에서 왜도는 절대값 3미만, 첨도는 10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변인은 정규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Kline, 2016).

<표 2> 유아의 애착 안정성, 놀이성 및 사회적 능력의 일반적 경향 (N = 48)

변인		최소값	최대값	M	SD	왜도	첨도
애착안정성	애착 안정성	-0.60	0.72	0.40	0.25	-1.83	4.97
	신체적 자발성	1.50	4.00	3.27	0.60	-0.69	0.13
놀이성	사회적 자발성	2.20	4.00	2.96	0.42	0.53	0.21
	인지적 자발성	2.00	4.00	3.01	0.48	-0.04	-0.18
	즐거움의 표현	2.60	4.00	3.46	0.43	-0.24	-1.12
	유머 감각	2.40	3.80	3.07	0.38	0.34	-0.72
사회적 능력	대인 적응성	2.09	3.82	2.95	0.39	-0.16	-0.22
	인기도/지도력	1.86	3.86	2.82	0.41	0.06	0.93
	사회적 참여	2.80	4.00	3.37	0.41	0.36	-1.32

1. 애착 안정성, 놀이성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유아의 애착 안정성, 놀이성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표 3>). 그 결과, 첫째,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사회적 능력의 하위 요인 중 대인 적응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35, p < .05$). 즉, 애착안정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또래 간 적응성이 높았다. 애착 안정성은 인기도/지도력과 사회적 참여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들은 대부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놀이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모두 인기도/지도력($r_s = .39 \sim .68, p < .01$ 혹은 $p < .001$)과 사회적 참여($r_s = .29 \sim .45, p < .05$ 혹은 $p < .01$)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 인지, 사회적으로 자발성을 더 보일수록 유아는 또래집단에서 인기가 많았으며 사회적으로 참여를 더 많이 하였다. 또한 즐거움의 표현은 사회적 참여($r = .32, p < .05$)와, 유머 감각은 대인 적응성($r = .32, p < .05$)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즐거움의 표현을 더 많이 할수록 사회적으로 참여를 더 많이 하였으며, 유머 감각이 많을수록 대인 관계에서 더 적응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애착 안정성과 놀이성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놀이성의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표 3>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N= 48)

	1	2	3	4	5	6	7	8	9
애착 안정성									
1. 애착안정성	-								
놀이성									
2. 신체적 자발성	-.16	-							
3. 사회적 자발성	.14	.45**	-						
4. 인지적 자발성	-.26	.25	.46**	-					
5. 즐거움의 표현	-.28	.34*	.48**	.51**	-				
6. 유머 감각	-.01	.22	.63***	.32*	.49***	-			
사회적 능력									
7. 대인 적응성	.35*	.07	.25	.11	-.05	.32*	-		
8. 인기도/지도력	.25	.39**	.68***	.46**	.15	.28	.28	-	
9. 사회적 참여	-.06	.45**	.37*	.29*	.32*	.26	.16	.28	-

* $p < .05$, ** $p < .01$, *** $p < .001$.

2. 애착 안정성과 놀이성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놀이성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애착 안정성과 놀이성의 다섯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능력의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세 번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의 가정이 충족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과 오차의 독립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38~.73, 분산팽창계수(VIF)는 1.37~2.67로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Durbin-Watson 계수를 살펴본 결과 1.67~1.79로 나타나 오차들 간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유아의 대인 적응성에는 애착 안정성($\beta = .37, p < .05$)과 유머 감각($\beta = .40, p < .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유머 감각이 높은 유아가 대인 간 적응성이 높았다. 애착과 놀이성의 하위요인들은 함께 대인 적응성

의 28%를 설명하였다. 인기도/지도력에는 신체적 자발성($\beta = .62, p < .001$), 인지적 자발성($\beta = .36, p < .01$), 즐거움의 표현($\beta = -.26, p < .01$)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적, 인지적 자발성이 높고, 즐거움의 표현을 덜 할수록 또래 집단에서 인기도와 지도력이 높았다.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63%이었다. 마지막으로 애착 안정성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자발성($\beta = .36, p < .05$)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은 26%이었다.

〈표 4〉 애착 안정성과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N = 48)

독립변인	대인 적응성		인기도/지도력		사회적 참여	
	B (SE)	β	B (SE)	β	B (SE)	β
애착 안정성	.57 (.24)	.37*	.34 (.18)	.21	.07 (.26)	.04
신체적 자발성	.07 (.10)	.11	.12 (.08)	.17	.24 (.10)	.36*
사회적 자발성	-.08 (.20)	-.08	.59 (.15)	.62***	.06 (.21)	.06
인지적 자발성	.18 (.14)	.22	.30 (.10)	.36**	.10 (.14)	.11
즐거움의 표현	-.24 (.16)	-.26	-.25 (.12)	-.26**	.08 (.17)	.09
유머 감각	.42 (.19)	.40*	-.14 (.14)	-.13	.08 (.20)	.07
R^2	.28		.63		.26	
F(df ₁ , df ₂)	2.65*(6, 41)		11.65***(6, 41)		2.40*(6, 41)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 안정성, 놀이성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놀이성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애착 안정성, 놀이성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 중 대인 적응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유아는 대인 간 적응을 더 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사회적 관계에 관심이 많고 협조를 잘하고(손혜련, 1996), 또래와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가지며(고경애, 1984; Pastor, 1981),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이진숙, 2001; 홍계옥, 최경순, 1996; 황소연, 방희정, 2012; Lieberman, 1977)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안정애착을 형성

한 유아가 낯선 또래나 성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보이고 사회적 기술을 더 많이 보였다는 결과 (Sroufe, 1983)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양육자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수록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사교적인 행동을 보이고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적응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애착 안정성은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인 인기도/지도력과 사회적 참여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수록 유아는 지도력이나 리더십을 더 많이 보이고(심미경, 2013; 이은순, 황미영, 김영희, 2009), 또래에게 먼저 다가가 상호작용을 주도한다고 보고(Thompson & Lamb, 1983)한 선행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애착 안정성이 사회적 능력의 세 하위요인 중 대인 적응성과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는 본 연구에서 사회적 능력이 측정된 방법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회적 능력은 어머니 보고로 측정되었는데, 사회적 능력의 세 하위요인 중 대인 적응성의 경우에는 유아의 일반적인 또래관계 내에서의 적응성을 측정했기 때문에 어머니 보고가 적합한 방법일 수 있지만, 인기도/지도력이나 사회적 참여의 경우에는 또래 집단 내에서의 유아의 행동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교사 보고나 행동 관찰을 통한 측정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능력을 행동 관찰이나 질문지 등의 다양한 방법과 교사, 어머니, 관찰자 등 다양한 보고자를 통하여 측정하여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유머 감각은 대인 적응성과,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자발성은 인기도/지도력과, 그리고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은 사회적 참여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는 놀이에서 장난을 잘 치고 또래의 유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유능성과 친사회성, 사교성이 높으며(이영미, 2003), 자발성이 높을수록 주도성이 높고 또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고희진, 2004; 김근희, 2005; Coie & Kupersmidt, 1983), 즐거움의 표현을 더 많이 할수록 또래 간 상호작용에 더 참여한다는(조송림, 2013)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사회적 능력이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되며, 또래집단 내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위해서는 유아는 가지고 있는 놀이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놀이성이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Rigby, 2007),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놀이성을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나 놀이도구, 그리고 놀이에 기초한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발달 및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두 변인, 즉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놀이성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유아기 애착 안정성과 놀이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드물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만 2세 걸음마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해은(200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교사가 평가한 걸음마기 아동의 놀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의 연령 차이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놀이대상을 평가한 보고자의 차이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즉, 이해은(2005)의 연구에서는 교사가 걸음마기 아동의 놀이성을 평가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유아의 놀이성을 평가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가 교사(류자혜, 2003)

나 관찰자(Porter & Bundy, 2001)보다 유아의 놀이성을 더 긍정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 어머니가 평가한 유아의 놀이성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참여 유아 간 놀이성에서의 개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통합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어머니, 교사, 관찰자 등 다양한 보고자들의 의견이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놀이성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대인 적응성의 경우에는 애착 안정성과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유머 감각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유머 감각이 애착 안정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애착 안정성과 유머 감각이 대인 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상관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애착 안정성과 유머 감각이 그 자체로 관계적인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 및 또래와의 관계에서 협력적이고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행동 특성인 대인 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머 감각이 애착 안정성보다 대인 적응성에 다소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애착 안정성의 경우 이 시기에 내적실행모델로 작동하여 유아가 또래 관계에서 보이는 행동을 이끌어 내지만, 실제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이끄는 특성은 유머 감각이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애착 안정성과 유머 감각의 상대적 효과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대인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애착 안정성과 유머 감각 모두 강조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인기도/지도력의 경우에는 놀이성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자발성이었으며,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유아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지적으로 자발성을 더 보일수록 인기도와 지도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우수경, 2013; 이연실, 2010)과 일치하는 결과로, 놀이 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놀이를 하는 것이 또래집단 내에서 높은 인기도/지도력을 가지기 위한 중요한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즐거움의 표현은 인기도/지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즐거움의 표현이 낮을수록 인기도/지도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즐거움의 표현이 높을수록 인기도/지도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우수경, 2013; 조송림, 2013)이나 즐거움의 표현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련성을 찾지 못한 연구(고희진, 2004)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즐거움의 표현이 유아의 인기도/지도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즐거움의 표현이 측정된 방식과 관련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즐거움의 표현은 “유아가 놀이를 하면서 즐거워한다.”, “유아가 놀이에 열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러한 문항들은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에서 즐거움을 표현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놀이에 얼마나 몰입하여 즐거움을 느끼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중심성이 강한 유아기에 유아가 놀이에서 지나치게 자신만의 즐거움이나 성취감에 몰두할 경우 오히려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아가 놀이 중 감정을 표현한다.”와 같은 문항의 경우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자마다 이에 대해 다

르게 해석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즐거움의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명확하고 심도 깊게 살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자기중심성을 함께 측정하여 통제 한 후 관계를 살펴보거나, 관찰 연구를 통해서 즐거움의 표현의 빈도 및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흥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참여에 애착 안정성과 놀이성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놀이 성 중 신체적 자발성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놀이에서 신체를 활발히 움직이고 동적인 활동과 신체 놀이를 선호할수록 또래 상호작용을 더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자발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참여가 높다는 연구결과(조송립, 2013)와 일치하며, 이외에 또래와의 놀이에 자발성을 가지고 협동적이고 쉽게 어울리는 유아는 또래 유능감도 높다는 연구결과(이상은, 이주리, 2010)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만 4세 시기 신체 발달에 기초를 둔 신체적 자발성이 사회적, 인지적 자발성보다 또래 그룹에서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유아가 또래집단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적인 활동과 신체 놀이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이러한 결과는 이 시기 애착 안정성과 놀이성의 하위요인 각각이 사회적 능력의 다른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대인 간 적응에는 관계적인 측면이 반영된 애착 안정성과 유머감각이, 인기도/지도력의 경우에는 사회적이고 인지적으로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특성이, 그리고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는 주도적인 신체적 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 간 상관의 유의하지 않았던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 4세 시기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아직은 통합되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능력의 하위영역은 이 시기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으며, 각 영역의 발달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능력의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애착 안정성과 놀이성에 더해 각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선행 변인들을 다양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와 관련한 제한점과, 이에 근거하여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48명의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수가 적어 변인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표집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보인 어머니의 유아가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머니들의 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 관찰을 통해 측정한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 보고를 통해 측정한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 모두 기존의 다른 연구들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점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층화표집이나 군집표집과 같이 보다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더 많은 연구 대상을 표집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애착의 경우에는 관찰을 통하여 측정하였지만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의 측정은 어머니 보고에만 의존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유아의 놀이성의 경우 어머니 보고와 교사나 관찰자의 보고가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류자혜, 2003; Porter & Bundy, 2001),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보고자와 다양한 연구방법(예: 질문지, 관찰)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어머니에게 갖는 애착만을 측정하였으나 최근 유아의 놀이와 사회적 능력에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를 포함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가 일상을 보내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유아가 가지는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였으며, 보육시설을 처음 접하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면서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 상황에서, 유아의 생활과 밀접한 놀이에서 나타나는 개인 내적인 성향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유아기 사회적 능력이 발달하는 데 가정에서 어머니와 형성하는 애착 안정성과 유아의 놀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고, 애착 안정성과 놀이성이 사회적 능력의 다른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사회적 능력의 통합적 발달을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고경애 (1984).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희진 (2004). 유아의 인기도에 따른 사회적 능력 및 놀이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숙화 (2008).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유아의 창의성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근희 (2005).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 (2001). 교사가 지각한 5세 유아의 놀이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정, 김희진 (2007).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따른 사회적 놀이의 연속적 변화 패턴. **아동학회지**, 28(1), 17-35.
- 김영희 (1995). 아동의 놀이성 군 확인과 관련 변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 (2002). 놀이를 잘 하는 아동의 특성에 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5(1), 3-15.
- 김은숙 (2013). 유아의 성별과 놀이성 및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81, 91-110.
- 도현심 (1994). Social competence of kindergartners and sixth graders: Its relationships to parental attention, parental protectiveness, the children's sex, and their birth category.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자혜 (2003).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만선 (2002).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 신은수, 김현진 (2012). 유아의 사회적 놀이행동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 혼자놀이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2(4), 249-268.
- 박혜원 (2012). 영유아기의 애착 측정 도구에 대한 개관. **사회과학연구**, 36(1), 63-83.
- 보건복지부 (2015). **2014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 서유진 (2005). 아동의 수줍음,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혜련 (1996).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모자간 애착, 유아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수, 권미경, 정현빈 (2010). 유아의 사회적 기술,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놀이 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83-209.
- 신은수, 김명순, 신동주, 이종희, 최석란 (2002). **놀이와 유아교육**.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심미경 (2013).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리더십 및 사회적 조망수용능력. **놀이치료연구**, 17(3), 41-55.
- 우수경 (2008). 유아의 성, 기질, 정서능력 및 사회적 능력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259-280.
- 우수경 (2009). 형제 수, 형제 성구성 및 출생순위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2), 367-388.
- 우수경 (2013). 어머니의 놀이성과 유아의 성 및 놀이성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열린유아교육연구**, 18(4), 263-283.
- 유애열 (1994). 유아의 상상놀이와 교사 개입에 관한 관찰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실 (1997).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은, 신건호 (2003).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3), 165-185.
- 이상은, 이주리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유아의 놀이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1(6), 71-85.
- 이연실 (2010). 유아의 놀이성과 리더십과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1), 33-48.
- 이영미 (2003). 유아의 유머표현 및 유머반응과 또래 유능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순, 황미영, 김영희 (2009). 유아의 애착유형과 정서조절 및 사회적 유능성. **생활과학연구논총**, 13(1), 59-82.
- 이진숙 (2001). 유아의 애착 표상과 교사-유아관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은 (2005).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놀이성 및 어머니의 놀이참여수준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정, 최태산 (2011). 아동의 놀이성 군(群)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 연구. **인간발달학회**, 18(30),

37-51.

- 조송림 (2013).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선, 김지혜 (2006).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4), 103-116.
- 홍계옥, 최경순 (1996). 유치원 유아의 모자녀간 애착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101-116.
- 황소연, 방희정 (2012). 유아의 애착과 기질이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3), 147-165.
- Ainsworth, M. D. S., & Wittig, B. A. (1969). Attachment and exploratory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trange situation. In B. M. Foss (Ed.), *Determinants of infant behavior* (Vol. 4, pp. 113-136). London: Methuen.
- Barnett, L. A. (1990). Playfulness: Definition, design, measurement. *Play & Culture*, **3**(4), 319-336.
- Belsky, J., Garduque, L., & Hrncir, E. (1984). Assessing performance, competence, and executive capacity in infant play: Relations to home environment and security of attach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3), 406-417.
- Bornstein, M. H., Hahn, C.-S., & Haynes, O. M. (2010). Social competence,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al adjustment from early childhood through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cascad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2**(4), 717-735.
- Bost, K. K., Vaughn, B. E., Washington, W. N., Cielinski, K. L., & Bradbard, M. R. (1998). Social competence, social support, and attachment: Demarcation of construct domains, measurement, and paths of influence for preschool children attending Head Start. *Child Development*, **69**(1), 192-218.
- Bowlby, J. (1969/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Y: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Y: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Y: Basic Books.
- Bowman, B. T., Donovan, M. S., & Burns, M. S. (Eds.). (2001). *Eager to learn: Educating our preschooler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Burt, K. B., Obradović, J., Long, J. D., & Masten, A. S. (2008). The interplay of social competence and psychopathology over 20 years: Testing transactional and cascade models. *Child Development*, **79**(2), 359-374.
- Coie, J. D., & Kupersmidt, J. B. (1983). A behavioral analysis of emerging social status in boys and girls groups. *Child Development*, **54**(6), 1400-1416.
- DeMulder, E. K., Denham, S., Schmidt, M., & Mitchell, J. (2000). Q-sort assessment of attachment security during the preschool years: Links from home to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6**(2), 274-282.

- Dodge, K. A., McClaskey, C. L., & Feldman, E. (1985). Situational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3), 344-353.
- Dodge, K. A., Pettit, G. S., McClaskey, C. L., & Brown, M. (1986).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1*(2), 1-84.
- Groh, A. M., Fearon, R. P., Bakermans-Kranenburg, M. J., van IJzendoorn, M. H., Steele, R. D., & Roisman, G. I. (2014). The significance of attachment security fo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A meta-analytic study.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16*(2), 103-136.
- Jenkinson, S. (2001). *The genius of play*. Gloucestershire: Hawthorne Press.
- Johnson, J. E., Christie, J. F., & Wardle, F. (2005). *Play, development and early education*. NY: Pearson/Allyn and Bacon.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Y: The Guilford Press.
- Ladd, G. W. (2005). *Children's peer relations and social competence: A century of progres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Lieberman, J. N. (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2), 219-224.
- Lieberman, J. N. (1977). *Playfulness: Its relationship to imagination and creativity*. NY: Academic Press.
- Luckey, A. J., & Fabes, R. A. (2005). Understanding nonsocial play in early childhood.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3*(2), 67-72.
- Marcus, R. F., & Kramer, C. (2001).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Attachment and social competence predictor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2*(3), 260-275.
- Nelson, L. J., Hart, C. H., Yang, C., Wu, P., & Jin, S. (2012). An examination of the behavioral correlates of subtypes of nonsocial play among Chinese preschooler. *Merrill-Palmer Quarterly, 58*(1), 77-109.
- Pastor, D. (1981). The quality of mother-infant attachment and its relationship to toddlers' initial sociability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7*(3), 326-335.
- Porter, C., & Bundy, A. C. (2001). Validity of three tests of playfulness with African American children and their parents and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beliefs and values and children's observed playfulness. In S. Reifel (Ed.), *Play & Culture Studies, volume 3: Theory in context and out* (pp. 315-334). Westport, CT: Ablex Publishing.
- Rentzou, K. (2012). Greek preschool children's playful behaviour: Assessment and correlation with personal and family characteristic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3*(11), 1733-1745.
- Rentzou, K. (2013). Preschool children's social and nonsocial play behaviours: Measurement and correlations with children's playfulness behaviour problem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4*(4), 633-647.

- Rigby, P. (2007). Stability of playfulness across environmental settings: A pilot study. *Physical & Occupational Therapy in Pediatrics, 27*(1), 27-43.
- Rose-Krasnor, L., Rubin, K., Booth, C., & Coplan, R. (1996). The relation of maternal directiveness and child attachment security to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09-325.
- Rubin, K. H., Fein, G. C., & Vandenberg, B. (1983). Play.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th ed., pp. 639-774). NY: Wiley.
- Santos, A. J., Vaughn, B. E., Peceguina, I., Daniel, J. R., & Shin, N. (2014). Growth of social competence during the preschool years: A 3-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85*(5), 2061-2073.
- Shonkoff, J. P., & Phillips, D. A. (2000). *From neurons to neighborhoods: The scien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Washington D. C. : National Academy Press.
- Slade, A. (1987). A longitudinal study of maternal involvement and symbolic play during the toddler period. *Child Development, 58*(2), 367-375.
- Sroufe, L. A. (1983). Infant-caregiver attachment and adaptation in the preschool: The roots of competence and maladaptation. In M. Perlmutter (Ed.), *Minnesota symposium in child development* (Vol. 16, pp. 41-81). Hillsdale, NJ: Erlbaum.
- Sutton-Smith, B. (1971). *Play is learning*. NY: Gardener Press Institute.
- Szewczyk-Sokolowski, M., Bost, K. K., & Wainwright, A. B. (2005). Attachment, temperament, and preschool children's peer acceptance. *Social Development, 14*(3), 379-397.
- Thompson, R. A., & Lamb, M. E. (1983). Security of attachment and stranger sociability in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19*(2), 184-191.
- van IJzendoorn, M. H., Vereijken, C. M. J. L., Bakermans-Kranenburg, M. J., & Riksen-Walraven, J. M. (2004). Assessing attachment security with the attachment Q-sort: Meta-analytic evidence for the validity of the observer AQS. *Child Development, 75*(4), 1188-1213.
- Veríssimo, M., Santos, A. J., Fernandes, C., Shin, N., & Vaughn, B. E. (2014). Associations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60*(1), 80-99.
-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 Q-methodology and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41-65.
- Waters, E., & S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1), 79-97.
- Wellman, H., Cross, D., & Watson, J. (2001). Meta-analysis of theory of mind development: The truth about false belief. *Child Development, 72*(3), 655-684.
- Widen, S. C., & Russell, J. A. (2004). The relative power of an emotion's facial expression, label,

and behavioral consequence to evoke preschoolers' knowledge of its cause. *Cognitive Development, 19*(1), 119-125.

논문투고 : 16.03.16
수정원고접수 : 16.04.06
최종게재결정 : 16.04.12